



2024.4.22.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94호

AI 시대 대한민국 사회와 개인의 미래: 기술과 공간의 변화가 주도하는 2050년 미래와 대응전략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ISSN

2733-8258

발행일

2024년 4월 22일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물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Contents

01

03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02

05

AI 시대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을 둘러싼
미래 시나리오 탐색

03

09

AI 시대 대한민국 미래 사회 시나리오와
개인의 미래 전망

04

21

2050년 대한민국 미래 사회 시나리오 기반
전략 탐색과 시사점



요약

■ 개인의 삶 관점에서 AI 시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 모습을 전망하면서 선호하는 미래로의 이행을 위한 전략과제를 탐구하고자 함

- 미래 AI 시대 개인의 웰빙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축인 '지능형 기술발전'과 '생활공간 변화'에 주목하여 다양한 가능성의 미래 시나리오를 탐색하고자 함
- 미래 시나리오별 파악되는 기회와 위험 요소를 근거로 다양한 미래 상황에 대응 가능한 전략적 대안과 정책 선택지를 탐색하고자 함

■ 2050년 대한민국 미래 사회 시나리오가 크게 두 가지 조건 변수인, 지능형 기술발전과 생활공간 변화의 복합 전개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미래 AI 시대 개인 삶의 질과 사회적 관계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복합적 미래 사회 시나리오를 1) 테크노크라시 주도 신뢰사회, 2) 협동적 다원주의 사회, 3) 파편화된 균열과 분열 사회, 4) 배타적 지능솔루션주의 사회 등 네 가지로 탐색

■ (가능 미래: 파편화된 균열과 분열 사회 속 '각자도생의 개인') 미래전망 결과는 대한민국 사회가 현재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파편화된 균열과 분열 사회'에 도달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

- 이러한 사회에서는 기술의 불안정성과 사회적 문제의 누적 등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고 이는 새로운 사회발전 모델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게 됨
- 또한 기술과 윤리 간 딜레마 확대, 정보의 과부하와 디스인포메이션 확산, 민주주의와 공론 형성의 어려움, 분산형 시스템의 한계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대두될 가능성이 큼
-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점점 더 사회적 연대로부터 멀어지면서 '각자도생'의 생활양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커지며 개인의 정체성 혼란과 소외감이 심화될 가능성이 큼

■ (회피 미래: 배타적 지능솔루션주의 사회 속 '고립된 개인') 이에 반해 개인의 삶의 질과 웰빙 측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시나리오는 '배타적 지능솔루션주의 사회'로 도출

- 이러한 사회에서는 지능형 솔루션이 일상을 지배하며, 기술진보에 비해 정책과 규제는 뒤쳐지는 현상이 나타나 역동적인 기술생태계 형성이 억제되고, 특정 계층의 권력과 자원 독점이 강화될 가능성이 큼



- 불평등 심화와 함께 사회적 자원의 편중 확대는 다양한 사회 계층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고, 저임금 노동의 확산과 기후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억제하며, 사회 간 갈등과 혐오 정치의 만연을 촉진
- 기술 중심 사회에서 개인은 점점 더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고 시민사회 내 다양성과 참여의 기회가 저하되며 상호불신과 집단 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

■ (선호 미래: 협동적 다원주의 사회 속 '자기주도적 개인') 이에 반해, 개인의 삶의 질과 웰빙 측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시나리오는 '협동적 다원주의 사회'로 도출

- 이러한 사회는 지역 기반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협력 네트워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 및 균형발전 촉진, 역동적 경제·산업생태계 조성, 다양한 혁신 주체 간 협력 강화, 그리고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대화 및 공론형성의 확대 등을 특징으로 함
- 개인 선택권과 일상생활의 유연성이 확대되며 개인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가능성이 큼
- 개인은 사회적 결정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를 통해 갈등과 긴장 속에서도 다양한 경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며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일 가능성이 큼

■ 국민 개개인의 삶 관점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비전을 창출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며, 국민 개인의 삶과 밀착한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직면할 수 있는 특수한 도전과 기회를 식별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필요와 도전에 대응하여 국회는 관련 법률과 제도를 검토·조정해나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도출한 다양한 가능성의 미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 사회 모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및 입법과제를 탐색해 나갈 필요가 있겠음

01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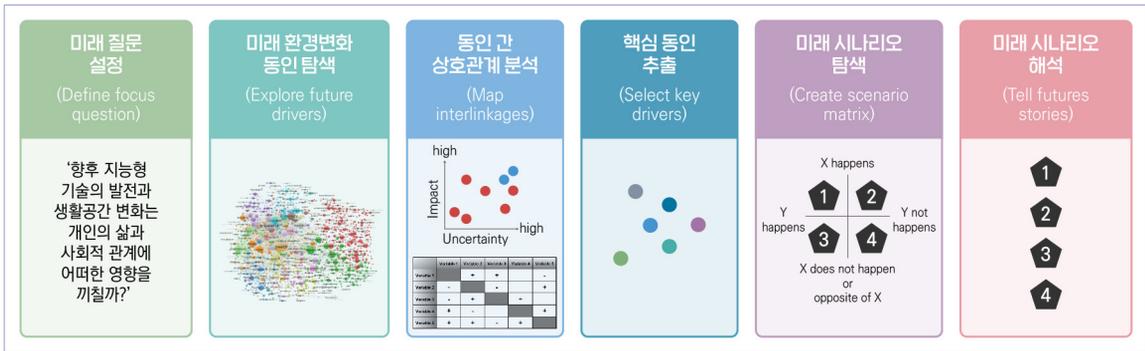
■ 연구의 배경

- (성숙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개인’의 가치) 개인의 삶 관점에서 AI 시대 2050년 대한민국 미래 사회 모습을 전망하면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의 미래를 탐색하고 선호하는 미래로의 이행을 위한 전략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 전략적 미래예측 접근 기반 미래전망 연구 체계 수립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능성의 미래 사회와 개인의 모습을 탐색하고자 함*
 - ※ 국가의 발전 목표를 위해 개인과 사회가 희생되는 것이 아닌, 평등한 주체로서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이뤄낼 필요가 있음. 새로운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국회미래연구원, 2021; 김현곤, 2021)
 - '22년 수행한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에서 확장·심화하여, 개인의 선택 관련 영역(기술 및 공간)에 초점을 맞춰 융합적 미래전망을 수행하고자 함
- (국민 개인의 삶과 요구에 밀착한 국회로의 전환 요구) 미래 시나리오별 잠재적 기회와 위험요소를 근거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미래 상황과 이에 대응한 전략적 대안을 폭넓게 탐색함으로써 유연하고 포괄적인 국회로 전환할 필요
 - 국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효과적인 소통과 정책결정 및 입법 과정 등을 위해서는 국회의 개혁과 국민의 삶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
 -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
 - 개인의 삶 관점 다양한 미래 사회 시나리오를 탐색함으로써,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직면할 수 있는 특수한 도전과 기회를 식별할 필요
 - 다양한 시민들의 필요와 도전에 대응하여 국회는 관련 법률과 제도를 검토하고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국회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에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고, 국민이 정책결정 및 입법 과정 등에 더 깊이 관여하도록 뒷받침할 필요
 - 나아가 국회는 현재의 이익을 넘어 미래 세대의 삶의 질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입법 및 정책개발을 이뤄내야 함

■ 연구의 목적

- **(개인의 삶 관점 미래 사회 전망 목적)** 미래 AI 시대 개인의 웰빙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축인 '지능형 기술발전'과 '생활공간 변화' 관련 주요 환경변화 동인을 탐색하고, 동인 간 상호작용에 기반한 미래 시나리오를 탐색함으로써 시나리오 기반 전략과제 탐색을 이뤄내고자 함(그림 1) 참고
 - 22년 연구에서 확장·심화하여, 개인의 선택 관련 영역에 초점을 맞춰 융합적 미래전망을 수행('관계', '환경' 및 '기술' 영역 포괄)
 - 미래전망을 위한 질문은 '향후 지능형 기술발전과 생활공간 변화에 따른 생활 변화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웰빙과 사회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로 설정¹⁾²⁾
 - 미래전망을 위한 주요 연구단계는 1) 미래질문 설정, 2) 미래 환경변화 동인 탐색, 3) 동인 간 상호관계 분석, 4) 핵심 동인 추출과 미래 시나리오 탐색, 5) 미래 시나리오 해석 및 전략적 대안 탐색 등으로 구성

그림 1 2050년 대한민국 사회와 개인의 미래전망 연구 주요 단계



- 이를 통해, 글로벌 차원으로 전개되는 다양한 환경변화 동인과 이슈들의 복합적 상호작용 속에서, AI 시대 우리나라 사회가 마주할 다양한 가능성의 미래를 탐색하고, 개인의 삶 관점에서 미래 사회 모습을 조망해보고자 함
 - 미래 시나리오별로 파악되는 기회와 위험 요소를 근거로 하여, 현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미래 상황에 대응 가능한 전략적 대안과 정책 선택지를 탐색하고자 함

1) 생활공간이라 함은, 직장, 가정생활, 의료환경 또는 학습환경을 포괄한 거주환경 등을 포괄한 개념으로 고려
 2) 지능형 기술발전과 생활공간의 변화는 개인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웰빙과 사회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한 미래 전망 질문 설정은, 기술과 공간 변화가 인간 삶의 질과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임을 밝힘. 즉, 변화하는 삶의 환경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과 개인의 웰빙 증진을 위해 필수적임

02

AI 시대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을 둘러싼 미래 시나리오 탐색³⁾

- (미래 환경변화 동인 탐색: Horizon scanning) 미래 환경변화를 일으킬 다양한 이슈와 동인⁴⁾들을 포함한 미래 변화 신호를 감지하고 탐색하고자, Web of Science(WoS) 서지 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을 수행⁵⁾
 - 미래 AI 시대 개인의 웰빙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칠, 1) 지능형 기술과 2) 생활공간 측면 미래 변화를 일으킬 주요 동인과 이슈들을 빅데이터 기반 분석(그림 2 및 그림 3)과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 폭넓게 탐색
 - 지능형 기술발전 및 미래 생활공간 변화 관련 주요 동인 탐색을 위하여 WoS DB 내 최근 5년간 게재된 SCI(E)/SSCI 논문 각각 46,708건 및 73,596건을 활용해 빅데이터 분석과 키워드 커뮤니티 분석 방법론을 적용
 - 이를 통해 글로벌 미래 이슈와 환경변화 동인들을 STEEP 분류체계⁶⁾를 기준으로 폭넓게 탐색하고 정리

그림 2 미래 지능형 기술발전 관련 환경변화 동인 키워드 네트워크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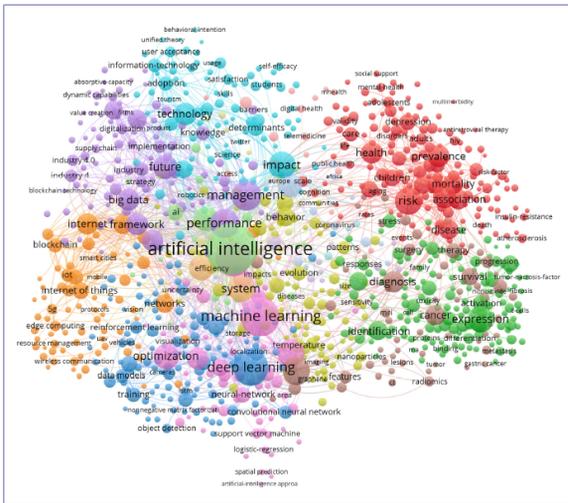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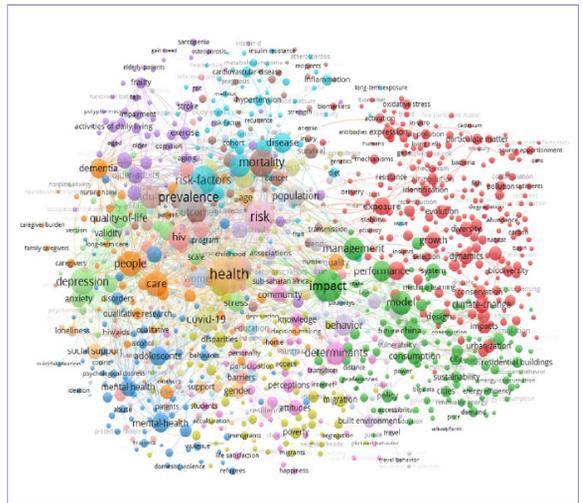


그림 3 미래 생활공간 변화 관련 환경변화 동인 키워드 네트워크 지도



3) 주요 방법론 측면 상세한 내용 및 시나리오 탐색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여영준 외(2023)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4) 미래 환경변화 동인(drivers of change)은 미래의 사회, 경제, 기술, 환경, 정치 등 여러 영역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을 의미하며, 이러한 동인들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예측 모델을 통해 미래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함
 5) Horizon scanning은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 등을 통해 미래 환경변화 동인과 미래 변화 초기 신호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음
 6) STEEP 분류체계는 환경변화 동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조직화하기 위한 체계로서, 사회적(Social), 기술적(Technological), 경제적(Economic), 환경적(Environmental), 정치/정책적(Political) 부문 등 다섯 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구성됨

■ **(미래 동인 간 상호연결성 고려한 미래 시나리오 탐색: Scenario mapping)** 탐색된 주요 동인 대상,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요인들을 선정함으로써 미래 시나리오 탐색에 활용

○ 앞선 단계를 통해 탐색된 동인들을 교차영향분석(cross-impact analysis)7)을 통해 영향력-종속성 측면으로 맵핑함으로써, 불확실성과 역동성이 높은 핵심 동인을 선정하고 미래 시나리오 탐색에 활용

- 미래 지능형 기술발전과 관련한 주요 핵심 동인으로, ▲‘지능형 기술사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에 관한 관심과 기술신뢰’(Social, 사회),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발전과 시스템 탈중앙화’(Technological, 기술), ▲‘기술진보를 뒷받침하는 생태계(산업 및 시장구조) 형성’(Economic, 경제), ▲‘환경 모니터링 기술발전과 에너지 효율성 개선’(Environmental, 환경),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활용 자원체계’(Policy, 정책)를 선정*

※ 예로 지능형 기술발전 관련 주요 동인 중 ‘지능형 기술사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에 관한 관심과 기술 신뢰’가 선정된 점은 데이터 및 AI 기술개발·활용에서의 윤리적 가치 정립과 실현을 통한 기술신뢰 형성이 미래 사회 모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시사함

- 미래 생활공간 변화와 관련한 주요 핵심 동인으로서,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 (Social, 사회), ▲‘원격환경에서의 건강/생활 관리’(Technological, 기술), ▲‘지역 내 지식 커뮤니티 형성과 사회적 자본 축적’(Economic, 경제), ▲‘기후변화에 따른 거주환경 취약성’(Environmental, 환경), 그리고 ▲‘사회보장체계와 형평성을 위한 정책 간 연계성’(Policy, 정책)을 선정8)

그림 4 미래 지능형 기술발전 관련 주요 동인 속성 탐색(영향력 및 종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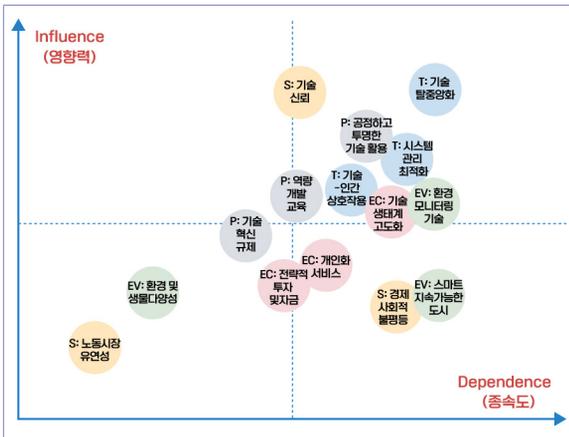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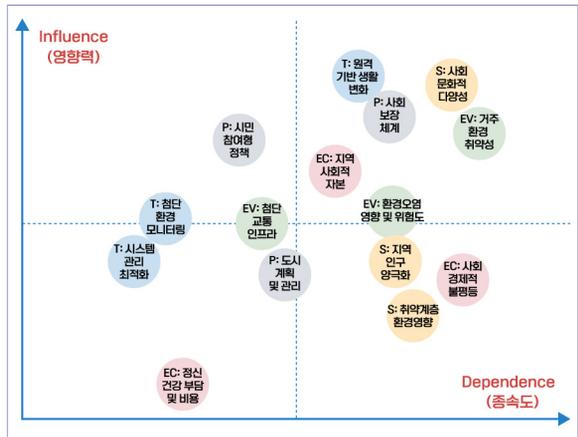


그림 5 미래 생활공간 변화 관련 주요 동인 속성 탐색(영향력 및 종속성)



7) 교차영향분석(cross-impact analysis)은 다양한 미래 이벤트나 미래 환경변화 동인의 발생 가능성과 개별 동인이 다른 동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다양한 미래 동인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시나리오를 모델링하는 데 활용되는 방법론임
 8) 가장 역동성과 불확실성이 함께 높은 동인들로서 [그림 4]와 [그림 5] 내 영향력과 종속도가 모두 높은 특성을 보이는 변수 중 STEEP 분류체계 내 개별 영역당 1개씩 핵심 동인을 선정하였음을 밝힘

- 핵심 동인별 복수의 가능한 변화양상(variants) 탐색 내용⁹⁾을 바탕으로, 내·외부 연구진 35명 대상 교차영향분석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미래 시나리오 탐색을 이뤄냄
 - 핵심 동인들의 다양한 가능한 변화양상 조합을 고려하여, 조합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 중 내부적으로 일관성을 갖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표 1] 참고), 시나리오별 미래 전개 양상과 모습을 해석하고자 시도함
- 대한민국 미래 사회의 다양한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조건이자 요인이 미래 지능형 기술발전에 따른 '기술신뢰 형성'(신뢰 형성 촉진 vs. 신뢰 형성 지체)과 미래 사회의 '중점 가치'(효율성 vs. 다양성/형평성)임을 파악하고, 이들 변화에 따라 사회가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¹⁰⁾
 - 그에 따라 미래 지능형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 사회 전개 시나리오를 1) 빅테크가 주도하는 초연결 신뢰 사회, 2) 다양성에 기반한 협업과 조화 사회, 3) 빅테크 확장과 중앙집중화된 효율성 사회, 4) 분산화된 경제 속 새로운 도전 사회로 도출
- 미래 사회의 다양한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조건이자 요인이 미래 생활공간 변화 속 '공간의 특성'(디지털 세계 vs. 실세계)과 '문화에 대한 수용성'(독립성 vs. 상호의존성)임을 파악하고, 이들 변화에 따라 사회가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¹¹⁾
 - 미래 생활공간 변화에 따른 미래 사회 전개 시나리오를 1) 디지털 생활공간 기반 다양성 연결과 융합 사회, 2) 가상과 현실이 만나는 융합된 문화 사회, 3) 전통적 가치 계승과 현실 중심 공동체 사회로 도출¹²⁾
- 2050년 대한민국 미래 사회 시나리오가 크게 두 가지 조건 변수인 지능형 기술발전과 생활공간 변화의 복합 전개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지능형 기술발전' 영역과 '생활공간 변화' 측면에서 각각 도출한 미래 시나리오들을 상호결합함으로써, 개인 삶의 질과 사회적 관계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복합적 미래 사회 시나리오를 1) 테크노크라시 주도 신뢰사회, 2) 협동적 다원주의 사회, 3) 파편화된 균열과 분열 사회, 4) 배타적 지능솔루션주의 사회 등 네 가지로 탐색¹³⁾

9) 예로 미래 지능형 기술발전 관련 핵심 동인으로 고려된, '지능형 기술사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기술신뢰'(Social, 사회)의 변화양상의 경우, ▲윤리적 문제 해소 통한 기술신뢰 형성, ▲윤리적 모호성과 기술신뢰 약화, ▲윤리적 무관심과 중립적 기술신뢰 등 복수의 변화양상으로 탐색 가능

10) [표 1]과 같이 미래 지능형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 사회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세부 동인들의 조합 구성을 바탕으로([표 1] 내 파란색 표기), 미래 시나리오들을 차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핵심 축(속성)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음. 그에 따라 1차적으로 '기술신뢰'와 '사회적 중점 가치'라는 두 가지 주축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 시나리오의 상대적 위치와 특성을 구분하고자 시도하고, 각각의 미래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세부 동인들의 서로 다른 조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자 시도함

11) [표 1]과 같이 미래 생활공간 변화에 따른 미래 사회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세부 동인들의 조합 구성을 바탕으로([표 1] 내 주황색 표기), 미래 시나리오들을 차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핵심 축(속성)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음. 그에 따라 1차적으로 '공간의 특성'과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라는 두 가지 주축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 시나리오의 상대적 위치와 특성을 구분하고자 시도하고, 각각의 미래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세부 동인들의 서로 다른 조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자 시도함

12) 미래 시나리오들을 탐색하여 도출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핵심 축들의 경우, 미래 시나리오 간 차별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들로 고려하였으며, 시나리오 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설정되었음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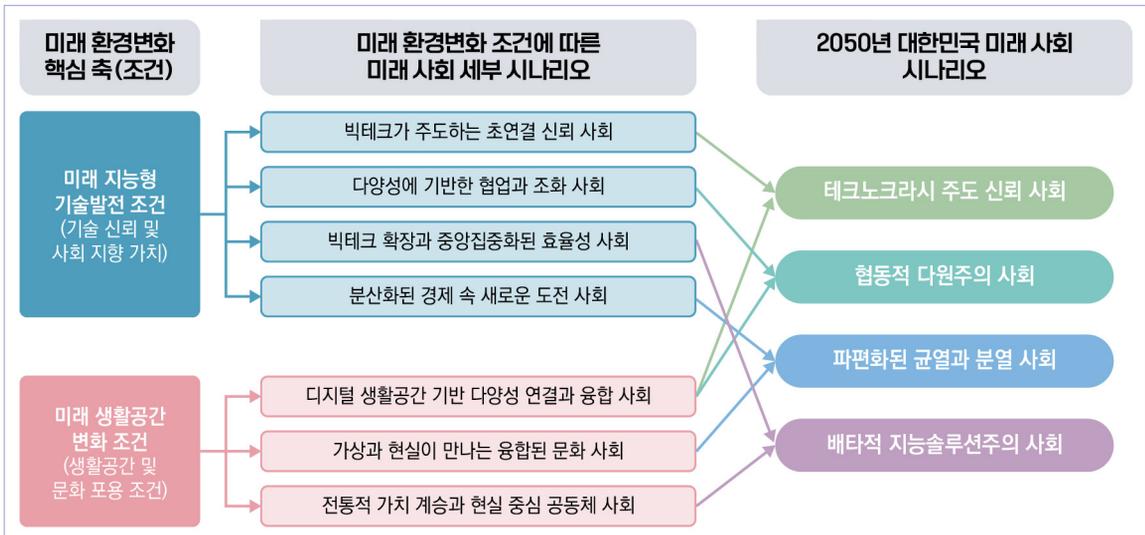
13) 복합적으로 고려한 미래 시나리오 구성 과정에서, 내·외부 연구진 논의를 통해 시나리오를 구별하는 핵심 주축으로서 '경제사회의 지향점'(효율성 중심-효과성 및 다양성 중심)과 '공간 특성'(디지털 세계-실세계) 측면을 고려하고, 시나리오들의 상대적 위치와 속성을 맵핑해 복합 시나리오를 도출함

표 1 AI 시대 대한민국 2050년 미래 사회 시나리오 주요 구성*

복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테크노크라시 주도 신뢰사회	시나리오 2: 협동적 다원주의 사회	시나리오 3: 파편화된 균열과 분열 사회	시나리오 4: 배타적 지능 솔루션주의 사회
세부 시나리오 구성	“빅테크가 주도하는 초연결 신뢰사회” & “디지털 생활공간 기반 다양성 연결과 융합 사회”	“다양성에 기반한 협업과 조화 사회” & “디지털 생활공간 기반 다양성 연결과 융합 사회”	“분산화된 경제 속 새로운 도전 사회” & “가상과 현실이 만나는 융합된 문화 사회”	“빅테크 확장과 중앙집중화된 효율성 중심 사회” & “전통적 가치 계승과 현실 중심 공동체 사회”
사회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적 문제 해소를 통한 기술 신뢰 포용과 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적 문제 해소를 통한 기술 신뢰 포용과 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적 모호성과 기술 신뢰 약화 포용과 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적 모호성과 기술 신뢰 약화 전통주의
기술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연결 중앙집권형 네트워크 기반 생태계 디지털 생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산형 네트워크 기반 생태계 디지털 생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산형 네트워크 기반 생태계 혼합된 생활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연결 중앙집권형 네트워크 기반 생태계 실세계 중심
경제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빅테크 중심 생태계 지식 공유 커뮤니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 및 중소기업 중심 생태계 지식 공유 커뮤니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 및 중소기업 중심 생태계 지식 공유 커뮤니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빅테크 중심 생태계 지식 공유 커뮤니티 위축
환경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통합 적응적 회복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통합 적응적 회복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택적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확장 적응적 회복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 에너지 인프라 개선과 확장 지역별 적응시스템 불균형
정책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적이고 민첩한 거버넌스 통합된 사회적 안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적이고 민첩한 거버넌스 통합된 사회적 안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 딜레마 및 법/규제 지체 통합된 사회적 안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 딜레마 및 법/규제 지체 분절적 복지

주1) 파랑색 표기는 미래 지능형 기술발전 관련 주요 동인 특성과 시나리오를 의미하며, 주황색 표기는 미래 생활공간 변화 관련 주요 동인 특성과 시나리오를 의미
 주2) 도출된 네 가지의 복합 시나리오의 경우 두 가지 조건 변수인 지능형 기술발전과 생활공간 변화의 미래 전개 시나리오를 복합하여 구성하였음을 밝힘

그림 6 AI 시대 대한민국 2050년 미래 사회 네 가지 시나리오



03

AI 시대 대한민국 미래 사회 시나리오와 개인의 미래 전망

- **(미래 시나리오 해석: Developing Scenario Narratives)** 2050년 미래 시점을 염두하여 도출한 복합 미래 시나리오가 전개된 사회 모습을 묘사하고자 함
 - 개별 복합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주요 동인들의 서로 다른 변화양상과 상호 간 조합을 고려하여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해석 작업을 수행
 - 개별 시나리오는 서사구조(narratives)를 통해 기술되며, 이 과정에서 개별 시나리오에서 식별되는 주요 기회요인과 도전과제를 탐색하고자 함
 - 시나리오별 파악된 기회와 위험 요소를 근거로, 다양한 가능성의 미래 탐색과 다양한 미래 상황에 대응 가능한 전략적 대안 탐색을 뒷받침하고자 함
- **(미래 사회 시나리오 1: 테크노크라시 주도 신뢰사회)** 2050년의 ‘테크노크라시 주도 신뢰사회’는 빅테크 기업들의 지배 아래 형성된 초연결·초지능 사회의 모습을 보여줌

표 2 AI 시대 대한민국 2050년 미래 사회 시나리오 1: “테크노크라시 주도 신뢰사회”

‘테크노크라시 주도 신뢰사회’의 주요 특성과 미래 모습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의 집합체로서 개인과 생산요소로서 알고리즘 부상 • 디지털 생활공간 기반 다양성 연결과 융합 확대
관계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력 및 의사소통 증가와 상호신뢰 증가 • AI 등 비인간 행위자와 관계 양상 다양화 및 증대 • 기술 중심의 교류 다양화와 이를 통한 개방성 증대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테크 주도 기술 및 시장운용 원리체계 마련 • 혁신적 기술의 우선 허용 및 사후 규제체계의 구축(규제체계의 선진화) •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사회 도래 • 도시, 가정,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웰빙 사회 실현 •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통합시스템 및 디지털 기반 생활 확대에 따른 지역발전 • 소수의 오피니언리더 중심 빠른 공론 형성
기회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테크 주도 기술혁신과 윤리적 기준의 균형 • 기술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 확대와 관계의 재정립 • 데이터 생산의 주역이자 소유자로서, 책임감 있는 개인의 등장 • 알고리즘 국가의 출현 가능성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반 효율적인 거버넌스 모델 등장 가능성)

‘테크노크라시 주도 신뢰사회’의 주요 특성과 미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도시생태시스템의 등장 가능성 • 새로운 대안을 찾는 다양한 주체와 공론 형성 플랫폼의 역할 주목 확대
도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테크 리스크의 글로벌 리스크화 • 기술 이해도 및 소통 능력에 따른 권력 격차 • 전문 지식인층에 대한 신뢰도 저하, 포퓰리즘 우려 • 건강한 민주주의 정치 위험

- **(기회: 빅테크 주도 기술혁신과 윤리적 기준의 균형)** 이러한 미래 사회에서는 윤리적인 기술활용과 신뢰 구축을 통해 사회적 포용성과 개방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
 - 빅테크 기업들이 사회와 기술의 미래를 주도하면서 초연결성과 디지털 생활화가 일상의 표준으로 자리잡게 됨. 이는 기술의 투명성과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 윤리적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가능해짐
 - 이 시나리오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사회의 신뢰 구조와 윤리적 기준을 형성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됨
- **(기회: 데이터 집합체로서 개인)**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개인 존재의 근간이 되며, 일상생활은 디지털 및 지능형 기술과의 깊은 융합 속에서 재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데이터 집합체로 인식하게 되고,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잡게 됨
 - 해당 미래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주체로서, 데이터의 생산, 공유, 활용에 있어 책임감 있는 행동을 이행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소수자나 취약계층의 데이터가 포괄적으로 수집되어 모든 개인이 사회 시스템 내에서 인정받고 보호받는 모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기회: 기술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 확대와 관계의 재정비)** 이 시대의 사회적 관계는 기술을 매개로 확장되고 다양화됨. 인공지능, 가상인간, 소셜로봇 등 비인간 행위자와의 관계가 깊어지며, 전통적인 인간관계의 경계가 흐려질 잠재성이 있음
 - 개인의 일상, 교육, 일자리는 빅테크 플랫폼을 통해 재편되고, 사람들은 빅테크가 제공하는 기술 및 지식 공유 플랫폼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연결과 교류를 경험하게 됨
 - 더불어, 도시와 가정, 기술의 융합은 생활 방식을 혁신하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가능하도록 뒷받침
- **(기회: 알고리즘 국가의 출현 가능성)** ‘알고리즘 국가’는 디지털 기술과 알고리즘의 활용이 국가 운영과 사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를 의미하며, 이러한 ‘기술-정치체제’ 출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박성원 & 김유빈, 2021)
 -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반의 효율적인 거버넌스 모델이 등장하며, 이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
- **(도전: 빅테크 리스크의 글로벌화 가능성)**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 시장지배력 남용, 프라이버시 침해 등은 국가 경계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이러한 리스크는 국제적 협력과 강화된 규제체계를 통해 관리되어야 할 필요

- **(도전: 기술 이해도 및 소통 능력에 따른 권력 격차)** 개인의 가치와 정체성이 데이터로 환원되면서, 데이터에 대한 소유와 통제권이 중요한 권력의 원천으로 작용
 -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소통 능력이 권력의 새로운 기준이 되며, 이로 인해 기술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인과 그렇지 못한 개인 사이에 사회적 자원 배분에 접근하는 능력에서 큰 차이(격차)가 나타날 수 있음
 - 정보의 소유와 접근성에 기반한 권력 격차는 빅테크 기업과 같은 주요 주체들이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음
 - 이는 소수의 기술 엘리트가 대다수 데이터와 정보를 통제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참여 기회가 제한될 위험이 있음¹⁴⁾
 - 기술과 정보에 대한 균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정책적 노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로 자리잡을 가능성
- **(도전: 전문 지식인층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포퓰리즘 우려)** 디지털 생활화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관심과 인기를 바탕으로 커뮤니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권력이 커짐
 - 대중이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인플루언서, 몇몇 대형 커뮤니티 중심이 되고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전문지식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
- **(도전: 건강한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 빅테크 기업 및 소수 오피니언리더의 영향력 확대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의사소통 확대 등 변화는 민주주의 정치에도 도전과제를 제공할 가능성이 큼
 - 디지털 도구와 플랫폼을 통한 빠른 정보의 유통과 의견 교환은 민주주의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집단 극화, 정보 거품, 개인정보의 남용과 같은 위험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극단주의의 확산이나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음
 - 또한, 소수 오피니언리더 및 빅테크 기업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정치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
 - 그에 따라 새로운 대안을 찾는 다양한 주체와 공론 형성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주목이 확대될 가능성
- **(미래 사회 시나리오 2: 협동적 다원주의 사회)** 2050년의 '협동적 다원주의 사회'는 다양성과 협업, 조화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생활공간이 주된 특징이며, 이 사회는 지능형 기술발전으로 인한 윤리적 문제가 해결되어, 기술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고 포용적인 협업과 조화가 일상화된 모습을 보여줌

14) 해당 시나리오는 사회 구성원 각각을 데이터의 집합체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사회 시스템에 통합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만,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술적 능력과 정보 접근성의 격차는 권력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표 3 AI 시대 대한민국 2050년 미래 사회 시나리오 2: “협동적 다원주의 사회”

‘협동적 다원주의 사회’의 주요 특성과 미래 모습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선택권 확장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영위 • 지능형 기술 적용 플랫폼 기반 디지털 생활 확대 • 디지털 및 지능형 플랫폼 기반 다양한 혁신적 시도 전개와 협업 확대
관계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등 비인간 행위자와의 관계 증대 • 전통적 정체성 그룹 외 다양한 정체성 그룹에 소속 (전통적 가족 외 다양한 대안 가족 형태가 사회적으로 수용) • 다양한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공존과 다양한 주체 간 협업 확대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기반 문제 및 사회적 문제해결형 협력 네트워크 확대 •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촉진 • 역동적 경제 및 산업생태계 조성 and 소비자 후생 확대 • 다양한 혁신 주체 간 협력형 네트워크 확대 및 사회적 가치 실현 확대 • 민주적, 사회적 대화와 공론 형성 확대
기회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확장된 선택권 • 개인 일상생활의 유연성과 자율성 • 개인 역량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한 ‘슈퍼 개인’ 출현 확대 • 창의적 시도 전개 확대와 기술혁신의 가속화 • 다양한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가 공존과 다양한 주체 간 협업 • 지역사회 기반 다양한 주체 간 협업 모델 등장 • 민주적, 사회적 대화 확대 •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 확대
도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분배 비효율화 및 고용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 • 공적 의제 선정 및 사회적 합의에 있어서 갈등 • 다양한 커뮤니티 간 갈등과 긴장 • 교육 및 기술 활용도 격차 확대 가능성 • 디지털 공간 기반 일상생활에 따른 다양한 문제 발생 가능성

- **(기회: 개인의 확장된 선택권)** 개인은 전통적인 삶의 틀을 넘어서는 다양한 선택권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직업, 교육, 여가, 거주지 선택 등 다양한 측면에 걸쳐 나타남
 - 분산형 통신 및 네트워크의 발전 등은 디지털 생활화 실현을 뒷받침하며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¹⁵⁾
 - 원격근무와 디지털 노마드 문화의 확산은 사람들이 세계 어디에서든 일할 가능성을 열어주며, 디지털 학습 플랫폼은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뒷받침
 - 이와 함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 등의 발달은 엔터테인먼트, 관광, 문화 활동에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
- **(기회: 개인 일상생활의 유연성과 자율성)** 유연한 근무 조건과 자율적인 업무환경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일과 개인 생활 사이의 경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함

15) XR(eXtended Reality),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 클라우드,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등 기술발전 및 적용 확대는 개인의 삶에 다양한 선택의 자유를 제공

- **(기회: 개인 역량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한 ‘슈퍼 개인’ 출현 확대)** 해당 미래 사회에서는 ‘다양성’을 근본적 가치로 삼으며,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 가치, 관심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의 발전은 다양한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형성을 용이하게 하여, 개인이 동질감을 느끼는 집단을 찾고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 및 사회 구성원과 협업하고 공존하며 진화하는 ‘슈퍼 개인’의 출현이 확대될 가능성(이승환, 2023)
- **(기회: 창의적 시도 전개 확대와 기술혁신의 가속화)** 다양한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의 공존은 개인에게 폭넓은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고, 다양한 주체 간 협업을 촉진
 - 이는 창의적 시도와 기술혁신을 가속화시키며, 개인의 역량개발과 자기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나아가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주체 간 협업 모델 등장을 촉진. 결과적으로 지역사회는 활성화되고 지역균형 발전이 촉진될 가능성 존재
 - 지역 기반의 문제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가 확대될 잠재성이 있음
- **(기회: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 확대)**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와 적응적 회복시스템의 통합과 상호연계를 바탕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할 가능성
 - 스마트 기술의 융합은 개인의 생활공간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며, 전반적인 환경 발자국을 줄이는데 기여
 - 이를 통해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며 생태계 보호와 재생에 기여하게 됨
- **(기회: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대화의 확대와 고도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플랫폼과 기회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 **(도전: 자원분배 비효율화 및 고용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 벤처 및 중소기업 중심 혁신생태계가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회가 증가하지만,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나 고용 안정성의 저하 등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도 존재
 - 역동적이고 분산화된 산업생태계 속에서 개인은 다양한 경력개발 기회를 모색해야 하며 개인의 경력개발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음
- **(도전: 공적 의제 선정 및 사회적 합의에 있어서 갈등)** 사회적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의 관심사를 결정하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더욱 복잡하고 시간과 자원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 다양한 커뮤니티의 의견조율과 통합에 어려움 예상
 - 중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실행하는 데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
- **(도전: 다양한 커뮤니티 간 갈등과 긴장)**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커뮤니티 간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갈등과 긴장이 높아질 수 있음
 - 이는 사회적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공동체 간 조화로운 공존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이러한 갈등을 중재하고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

- **(도전: 교육 및 기술 활용도 격차 확대 가능성)** 모든 사람이 최신 기술과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음
 -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해 정보량이 증가하며, 개인이 이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과 학습 시간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
 - **(도전: 디지털 공간 기반 일상생활에 따른 다양한 문제 발생 가능성)** 디지털 공간 기반 일상생활 확대는 세제 관리, 조직 관리 운영의 복잡성, 기술 도입비용 및 보안 이슈 등 다양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미래 사회 시나리오 3: 파편화된 균열과 분열 사회)** 2050년 ‘파편화된 균열과 분열 사회’는 기술발전의 양면성이 드러나며 기술발전에 따른 윤리적 이슈 미해결 등에 따른 기술신뢰 약화, 그리고 분산화된 경제 및 사회시스템이 기반이 된 모습으로 전개

표 4 AI 시대 대한민국 2050년 미래 사회 시나리오 3: “파편화된 균열과 분열 사회”

‘파편화된 균열과 분열 사회’의 주요 특성과 미래 모습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공유와 학습의 새로운 기회 마련 • 초분열적 사회 구조 속 고립된 개인 증대 • 현실과 가상의 경계 모호화 등에 따른 정신적 불안 증대
관계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커뮤니티 및 소셜 네트워크의 확장 • 새로운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가능성 • 개인 불안감 증대에 따른 저신뢰 사회 • 교류 범위의 축소와 기존 관계 기반 교류 확대 • 집단 간 갈등 심화와 타 집단에 대한 불신 증대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형 시스템의 강화와 시스템 간 상호운용 및 연계 필요성 증대 • 역동적인 기술생태계 형성 제약 • 경제·사회적 불평등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적 고립 문제 심화 • 기술 기반 경제성장에 대한 회의론 대두(기술 적대적 집단 형성 가능성) •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과 규제 • 민주주의 제도의 새로운 도전과제 직면
▼	
기회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및 사회시스템 재편성에 따른 기회 확대 • 새로운 사회적 연결성의 발견 • 사회적, 기술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모색 • 지식 공유와 학습의 새로운 기회
도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과 윤리 간 딜레마 확대 • 탈성장론 및 새로운 사회 발전모델에 대한 요구 확대 • 사회적 분열과 초분열 사회 등장 • 개인의 정체성 혼란과 소외 현상 심화 • 정보 과부하와 디스인포메이션 확산 • 민주주의와 공론 형성의 어려움 • 분산형 시스템의 잠재력 활용의 한계

- **(기회: 경제 및 사회시스템 재편성에 따른 기회 확대)** 중앙집권화된 기술 및 사회시스템 대신 분산형 시스템 및 생태계가 선호되어, 중앙집권형 시스템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전개가 확대될 가능성
 - 분산형 시스템과 벤처 및 중소기업 중심 경제 및 기술생태계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기업과 정신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음
 - 분산화된 기술, 산업 및 사회시스템은 지역이 자체적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님
- **(기회: 새로운 사회적 연결성의 발견)** 분산형 시스템과 다양한 경제 주체의 활성화는 사회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개인과 커뮤니티가 가진 독특한 가치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잠재성이 있음
 - 다양한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의 확장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이들과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
- **(기회: 사회적, 기술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모색)** 기술 신뢰의 약화와 윤리적 문제의 대두는 사회적, 기술적 차원 윤리적 가치와 실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함
 - 기술개발과 활용에 있어, 보다 책임감 있는 접근을 촉진하며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를 제공
- **(기회: 지식 공유와 학습의 새로운 기회)** 분산형 경제 생태계와 함께 지식 공유 커뮤니티의 활성화는 학습과 교육에 있어 새로운 방식을 제시
- **(도전: 기술과 윤리 간 딜레마 확대)** 사람들은 다양한 디지털 및 아날로그 기술을 병행하여 사용하지만, 이 과정에서 AI를 비롯한 지능형 기술이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편향과 차별을 심화시킴으로써 기술에 대한 신뢰가 크게 약화
 -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기술에 대한 불신을 촉진하며, 기술발전과 사회적 진보 사이의 긴장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음
 - 기술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기술 딜레마 및 관련 법/규제 지체 등으로 인해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이 지체될 수 있음
- **(도전: 탈성장론 및 새로운 사회 발전모델에 대한 요구)**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과 문제점 해결에 적시에 이뤄지지 않고 누적됨에 따라,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중시한 새로운 '성장 모델'에 대한 요구가 확대¹⁶⁾
- **(도전: 사회적 분열과 초분열 사회 등장)** 기술신뢰 약화와 윤리적 모호성은 초연결사회의 잠재적 위험을 인식시키며, 그에 따라 사회는 초분열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초분열은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집단 간, 인간과 기술, 그리고 기술 간 관계 등에서도 나타나며, 경제사회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잠재성이 있음¹⁷⁾
- **(도전: 개인의 정체성 혼란과 소외 현상 심화)**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기술변화와 사회/ 제도변화 간 불일치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혼란을 겪게 되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정신적 불안과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음
 - 지속된 시스템 불안정성으로 인해 개인은 점점 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16) 기술, 정보, 그리고 사회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낮아짐에 따라, 탈-기술적, 반-기술적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소수 집단의 등장으로 사회 내부의 균열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기존 사회적 합의와 가치 체계에 대한 도전을 가중시키며, 사회적 대화와 합의 형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17) 새로운 문화와 전통, 인종 등이 함께하지만 성공적으로 공존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음. 저신뢰 사회화로 인해 동질적 집단 간의 교류가 강화될 수 있음. 다른 정체성 집단, 이질적 집단이 제시하는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 이는 사회적 유대감의 약화와 개인의 고립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음¹⁸⁾
 - **(도전: 정보 과부하와 디스인포메이션의 확산)** 디지털 공간의 정보 과부하는 개인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고, 가치 있는 관계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함
 - 이는 의사결정에 있어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정보의 질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킴
 - 가짜뉴스와 디스인포메이션 확산은 온라인 커뮤니티 내 신뢰도를 저하하며 개인과 집단 간 대립을 심화시킴. 이는 사회적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집단 간 갈등을 증가시킴
 - **(도전: 민주주의와 공론형성의 어려움)** 기술적 신뢰의 약화와 규제의 지체는 민주주의 제도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음
 - 정보의 분산화와 신뢰도 약화, 다양한 소셜 미디어 및 커뮤니티의 영향력 증대는 공론형성의 어려움을 낳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 도출과 문제해결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 공동체 및 사회 내 의사결정과정의 파편화되고 통합된 목소리 형성이 어려워짐
 - **(도전: 분산형 시스템의 잠재력 활용의 한계)** 분산형 시스템의 장점인 아이디어 창출과 기술개발의 다각화가 법적·사회적 안정성의 부족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신규 사업자들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시장에 도전하더라도 사회적 신뢰의 부족과 법적 안정성의 낮음으로 인해 경쟁력 확대에 한계를 보이며 역동적인 기술 및 산업생태계 조성에 제한
- **(미래 사회 시나리오 4: 배타적 지능솔루션주의 사회)** 2050년 ‘배타적 지능솔루션주의 사회’는 기술에 대한 신뢰 약화, 초연결 중앙집중형 네트워크 기반 생태계, 빅테크 중심 생태계, 전통적 에너지 인프라의 개선 및 확장, 기술 딜레마 및 법/규제 지체, 그리고 분절적 복지 시스템 등을 특징으로 하는 미래 시나리오*
- ※ ‘기술적 솔루션주의(Technological solutionism)’는 기술이 사회, 정치, 윤리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나 태도를 의미

표 5 AI 시대 대한민국 2050년 미래 사회 시나리오 4: “배타적 지능솔루션주의 사회”

‘배타적 지능솔루션주의 사회’의 주요 특성과 미래 모습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선택권 제한과 전통적 라이프스타일 유지 • 개인의 사회적 고립과 불안감 증대
관계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가족형태 중시로 인한 가족 중심 관계 형성 • 대면 교류 중심, 동질적 집단과의 배타적 교류 확대 • 교류 범위의 축소와 기존 관계 기반 교류 확대에 의한 집단 간 갈등 심화 • 실세계 및 물리적 공간 기반 일상생활과 활동 범위의 확장 한계

18) 디지털 공간에서의 관계는 알고, 일시적인 특성을 보임에 따라, 온라인 상호작용의 익명성과 휘발성은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들. 또한, 디지털 기반과 사기가 확산함에 따라 이는 개인으로 하여금 디지털 기반 관계 형성을 더욱 경계하도록 함

‘배타적 지능솔루션주의 사회’의 주요 특성과 미래 모습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능) 솔루션주의의 만연 •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과 규제 • 역동적 기술생태계 형성 제약 • 특정 계층 중심 권력, 자원 독점 심화 •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영향력 저하 • 경제·사회적 불평등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적 고립 문제 심화 • 민주주의 제도의 새로운 도전과제 직면
기회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문제해결 기회 확대 • 전통적 가치의 유지와 계승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 •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 빅테크 주도 기술생태계 기반 경제적 이윤 창출
도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테크 중심 기술생태계 내 쉼존 확대 • 특정 계층 중심 권력 및 자원 독점 심화 • 사회적 고립과 불안감 증대 •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불안 • 기술개발 및 활용에서의 책임성 부재와 신뢰 형성 제약 • 저임금·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집단 간 갈등 확대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제약과 기후 난민 문제 확대

- **(기회: 신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문제해결 기회 확대)** 지능형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 **(기회: 전통적 가치의 유지와 계승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 전통적인 가치와 문화가 재평가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발전할 기회가 마련될 가능성
 - 전통적인 가치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지역사회 및 커뮤니티(집단)들은 서로의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
 - 축적된 전통적인 기술과 지식을 보존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미래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음¹⁹⁾
- **(기회: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전통적 가족관계와 지역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며 이들의 지원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강조될 수 있음
- **(기회: 빅테크 주도 기술생태계 기반 경제적 이윤 창출)** 빅테크 기업들은 광범위한 자본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이점을 가지고 있고 기술/산업생태계를 주도하며 다양한 주체 간 협력과 혁신을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음

19) 문화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 가능성도 존재하며 국가/지역 차원의 전통과 역사를 기반으로 한 산업과 기술개발 지원이 확대될 수 있음

- **(도전: 기술(지능) 솔루션주의의 만연)** 특정 사회적, 경제적, 또는 환경적 문제들이 기술의 발전과 적용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 이 지배적인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기술 중심 '솔루션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예로, 범피 예방을 목적으로 한 감시 기술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데이터 기반 판단과 의사결정이 편향을 초래하는 등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음²⁰⁾
- **(도전: 빅테크 중심 기술생태계 내 길존 확대)** 빅테크 기업의 지배력 강화와 신규 기업에 대한 투자위축은 혁신적 기업의 탄생을 어렵게 하며, 역동적 혁신생태계 조성과 효율적 자원 재배분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빅테크 기업들은 경쟁 신생 기업을 인수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와 제품을 시장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출시함으로써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를 차단하여, 시장 왜곡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음
- **(도전: 특정 계층 중심 권력 및 자원 독점 심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는 소수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음.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문제를 야기
 -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는 그 발언권과 영향력을 얻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존재
- **(도전: 사회적 고립과 불안감 증대)** 지능형 기술기반 솔루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회에서는 인간관계와 커뮤니티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사회적 고립과 불안감을 증가시킴
 - 사회적 관계 형성은 동질적 집단과의 배타적 교류가 중심이 되어 이질적 집단에 대한 경계와 적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도전: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불안)**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무비판적 신뢰는 잘못된 정보나 오해가 증폭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며 이는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음
- **(도전: 기술개발 및 활용에서의 책임성 부재와 신뢰 형성 제약)** 과도한 규제 지체로 인해 기술이 불안정하게 도입되거나, 그 활용이 제한될 수 있음. 이는 사람들이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확신을 잃게 만들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나 규제 기관 등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며 공공정책의 효과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 새로운 기술 도입이나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만연할 가능성도 존재
- **(도전: 저임금·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집단/계층 간 갈등 확대)** 빅테크 하의 깃 노동(gig-work)이 확산되어 일자리는 꾸준히 공급되지만, 저임금 미숙련 노동이 대다수이며 경력개발이 어렵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
 - 불안정한 일자리, 분절적 복지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층 이동성이 낮아지는 사회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이로 인해 젠더, 세대, 국가, 인종 등 서로 다른 집단, 계층 간 긴장과 갈등이 심화
- **(도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제약과 기후 난민 문제 확대)** 전통적 에너지 인프라의 개선과 확장, 지역별 적응시스템의 불균형으로 인해 기후변화 대응역량이 약화되고 기후 난민 문제가 확대될 수 있음²¹⁾

20) 프라이버시, 기술의 투명성, 설명 가능성의 문제가 커질 우려가 더욱 증대될 수 있음. 개인의 정보가 항상 수집되고 제3자에게 전달되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를 인지하기도 어렵고 대응은 더욱 어렵게 됨

21) 지능형 기술기반 시스템 운용을 위한 에너지 및 환경 규제와 지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

■ **(미래 시나리오 전망: Exploring Plausible Futures)** 도출한 미래 시나리오들을 구성하는 특정 상황과 조건들이 반영된 경제사회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미래가 전개되었을 때 개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을 시도

-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동인들을 포괄함으로써 미래전망 모델을 수립하여 활용함
 - 미래질문에 상응하는 전망변수인 '개인 삶의 질(삶에 대한 만족도)'와 '사회적 고립도'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경제, 환경, 제도적 변수들을 고려하고, 이들 간 상호작용과 인과관계를 고려한 모델을 설계
-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4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주요 불확실성 요인들의 조합을 고려하여 모델에 시나리오로서 반영(BAU²²) 대비 4개 시나리오별 변화를 조망
 - 앞서 도출한 주요 핵심 동인 10개를 고려([표 1] 참고)하고 해당 동인들의 변화양상을 시나리오별로 차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미래전망을 이뤄냄

그림 7 BAU 대비 미래 시나리오별 개인의 삶 전망(개인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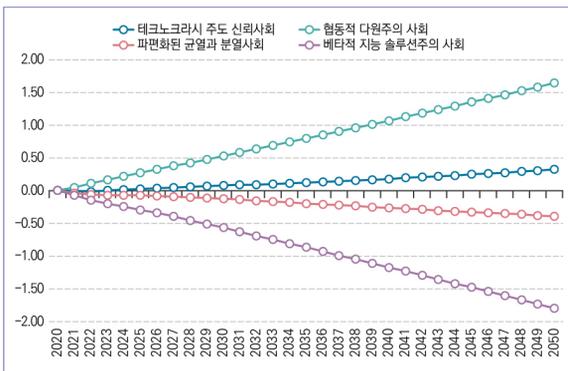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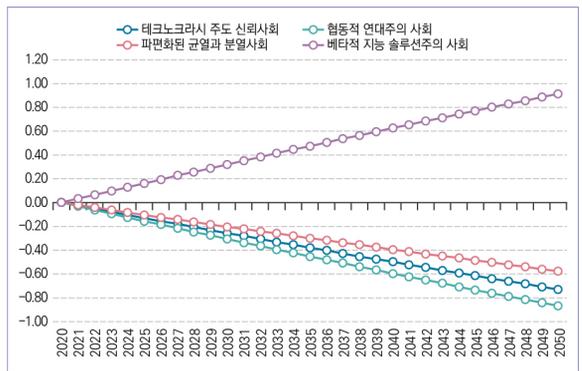


그림 8 BAU 대비 미래 시나리오별 개인의 삶 전망(사회적 고립도)



- **(가능 미래: 파편화된 균열과 분열 사회)** 정량적 모델 기반 전망 결과는 '파편화된 균열과 분열 사회' 시나리오가, 미래 시나리오 중 가장 가능한 미래일 수 있음을 확인*
 - ※ BAU 대비 주요 전망변수(개인 삶의 대한 만족도, 사회적 고립도)의 시나리오별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파편화된 균열과 분열 사회'의 전망치가 BAU와의 차이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을 파악
- **(회피 미래: 베타적 지능 솔루션주의 사회)** 이에 반해, BAU 대비 개인 삶의 만족도가 가장 저하되고, 사회적 고립도도 가장 확대되는 시나리오인 '베타적 지능솔루션주의 사회'는 (잠재적으로) 우리가 회피해야 할 미래 시나리오로 해석
- **(선호 미래: 협동적 다원주의 사회)** BAU 대비 개인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향상되고, 사회적 고립도가 가장 완화되는 '협동적 다원주의 사회'가 우리가 가장 지향해야 할 규범적 미래이자 선호하는 미래임을 유추
-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해석과 전망 결과를 토대로, 1) 테크노크라시 주도 신뢰사회 속 '종속적 개인', 2) 협동적 다원주의 사회 속 '자기주도적 개인', 3) 파편화된 균열과 분열 사회 속 '각자도생의 개인', 그리고 4) 베타적 지능솔루션주의 사회 속 '고립된 개인'의 모습을 도출함([표 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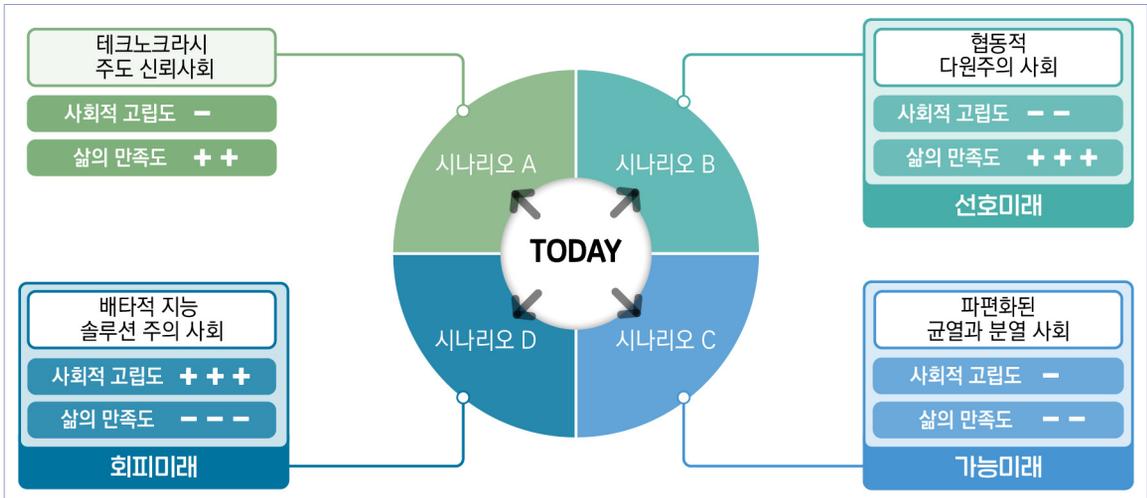
22) BAU(Business-As-Usual)는 현재의 정책, 기술, 행동양식, 경제활동 등이 미래에도 변화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을 말함. 이는 설계된 미래 시나리오별 서로 다른 경로를 비교분석을 위한 기준선으로 활용됨

표 6 AI 시대 2050년 대한민국 개인의 미래전망

미래 시나리오	미래전망 결과*	주요 개인 삶 관점 미래 전망	개인의 미래전망
테크노크라시 주도 신뢰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이탈도 (-) • 삶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테크 기술생태계의 지배력 확대 • 기술신뢰와 비대면(디지털) 생활양식의 정착 • AI 기술과 비인간 행위자와의 관계 형성 확대 • 빅테크 주도 기술생태계와 사회 구조에 종속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 상실 가능성 • 기술 이해도 및 소통 능력에 따른 권력 격차 	→ 종속된 개인
협동적 다원주의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이탈도 (--) • 삶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결정 과정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 개인의 선택권 확대(자율성 및 책임의식 강화) •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 확산 속 갈등과 긴장 • 개인 데이터/정보 주권 존중과 기술신뢰 형성 • 사회적 다양성과 포용성 강화 • 공적 의제 선정 및 사회적 합의에 있어서 갈등 • 교육 및 기술 활용도 격차 확대 가능성 	→ 자기주도적 개인 (선호 미래)
파편화된 균열과 분열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이탈도 (-) • 삶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의 불안정성과 사회적 문제의 증가 • 비인간 행위자와의 관계 형성의 제약 • 비대면 관계 등 다양한 관계형성에 대한 신뢰 제약 • 기술에 대한 신뢰 하락과 탈-기술적 생활방식 추구 • 개인의 정체성 혼란과 소외 현상 심화 • 정보 과부하와 디스인포메이션(가짜뉴스)의 확산 	→ 각자도생의 개인 (가능 미래)
배타적 지능 솔루션주의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이탈도 (+++) • 삶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테크 중심 기술생태계 형성과 윤리적 문제 확대 • 사회적 자원분배의 불균형과 다양한 목소리의 제약 • 특정 계층 중심 권력 및 자원 독점 심화 • 대면/직접 교류 중심 및 관계 범위 축소 • 상호불신의 증가와 정체성 집단 강화 • 집단 간 갈등 심화 및 혐오 정치 만연 • 사회적 고립과 개인의 불안 증가 	→ 고립된 개인 (회피 미래)

주1) 해당 표 내 주요 전망 결과치는 BAU 시나리오 대비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정리해 제시한 것임을 밝힘

그림 9 AI 시대 개인의 삶 관점 미래 시나리오 탐색과 전망



04

2050년 대한민국 미래 사회 시나리오 기반 전략 탐색과 시사점

- (시나리오 기반 전략과제 탐색: From Foresight to Strategy) 미래 시나리오별로 파악된 기회와 위험 요소를 근거로, 현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미래 상황에 대응 가능한 전략적 대응 방안과 정책 선택지를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미래 시나리오 중 ‘협동적 다원주의 사회’ 시나리오를 선호하는 미래로서, 우리가 이행하여야 할 규범적 미래상(image)으로 설정
 - 개별 시나리오와 ‘협동적 다원주의 사회’ 시나리오 간 간극(gap)을 고려하여, 개별 미래 시나리오가 선호하는 미래상으로 이행하기 위한 주요 전략들이 무엇인지 탐색
 - 나아가, 개별 미래 시나리오에서 식별되는 주요 도전과제 해소와 기회 요인에 대한 적응을 뒷받침하는 주요 핵심 전략과제를 탐색하고자 함(표 7 참고)

표 7 2050년 대한민국 미래 사회 시나리오 기반 핵심 중장기 전략 탐색

미래 시나리오	미래 시나리오 기반 전략과제 탐색
테크노크라시 주도 신뢰사회 속 ‘중속적 개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와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및 기술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 디지털 시민 주도의 지식 공유 커뮤니티 조성 지원 2. 데이터 주권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데이터 관리와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투명한 데이터 관리와 공정한 사용 보장과 허위 정보와 데이터 조작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 사회적 포괄성 및 소수자 권리 보호 강화 (모든 개인이 사회 시스템 내에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 3. 기술윤리 실천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고리즘 국가의 실현과 거버넌스 혁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 효율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 윤리적 기술 거버넌스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4. 사회적 연대 및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및 사회적 소통 능력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건전한 공론형성 및 시민 참여 촉진 5. 국제적 협력과 기술 안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참여형 빅테크 감시 및 견제 장치 마련 • 전 인류적 차원의 기술 안보 강화

미래 시나리오	미래 시나리오 기반 전략과제 탐색
<p>협동적 다원주의 사회 속 '자기주도적 개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 맞춤형 교육 및 학습시스템 구축을 통한 평생학습체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중심 교육 및 학습 플랫폼 개발과 총체적 교육 방법론 적용 확대 • 온라인 학습환경에서의 탐구 공동체 형성과 학습자 경험 최적화 도모 • 미래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편적 권리로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2. 사회적 중개 및 갈등 조정 기구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과 포용성 기반의 갈등 해결 메커니즘 구축 (커뮤니티 기반 갈등해결 플랫폼 및 운영 상시화·실질화 등) • 온라인 의견조율 및 합의도출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개발 등 인프라 구축 3. 다양한 업무환경을 고려한 조직환경 혁신 및 제도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근무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정책 마련 •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운영 및 데이터 보안/프라이버시 보호 등 업무지침 마련 •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 및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개발·배포 • 클라우드 기반 협업 도구,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도입 지원 4.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강화를 통한 투명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책결정 거버넌스 체계 마련 •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참여적 정책개발 확대 • 다양한 시민 그룹의 대표성 확보 • 정책개발 프로세스의 투명성 및 접근성 확대 5. 데이터 주권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데이터 관리와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적 표준 설정 및 감독 기구 강화) • 사회적 포괄성 및 소수자 권리 보호 강화 • 데이터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캠페인 확대
<p>파편화된 균열과 분열 사회 속 '각자도생의 개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모델 탐색과 사회시스템 전환 속 갈등조정 기구 역할 재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성장 모델 탐색을 위한 연구 및 이니셔티브 개발 •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모델 사업 확대 • 탈탄소화 등으로 벌어질 다양한 이해자 간 갈등조정기구 마련 • 효과적 일자리 전환을 위한 플랫폼 및 역량지원 프로그램 확대 2. 기술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한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기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 및 사용자 데이터 보호 강화. • 기술개발·응용과정에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 강화를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 마련 • 기술영향분석 역량 강화 및 관련 거버넌스 체계 개편 (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잠재적 이슈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 기술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윤리적·법적 규제를 지속적이고 민첩하게 업데이트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확립 3. 비인간 행위자와의 상호작용 증진 및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개발 • 비인간 행위자를 포함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윤리적 및 법적 기준 수립 4. 분산형 시스템의 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시스템 전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기반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혁신주체 간 협력 거버넌스 고도화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지역 문제해결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권한 재배분 • 다양한 지역주민 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공동체) 지원 • 분산형 기술(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 등)을 활용한 거래 및 정보 공유 시스템 개발 지원

미래 시나리오	미래 시나리오 기반 전략과제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공유 및 협업 플랫폼 활성화 위한 학습공동체 형성 촉진 (다양한 분야 전문가 및 학습자 간 협업을 촉진하는 디지털 도구와 플랫폼 확대) • 지역사회의 민주주의의 고도화를 위한 정당법 수정을 통한 지역 정당 출현 촉진 <p>5. 데이터 주권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데이터 관리와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사회적 포괄성 및 소수자 권리 보호 강화 • 데이터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캠페인 확대 <p>6. 개인의 정체성 및 심리적 안정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시대 심리적 부담과 정체성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 확대 <p>7. 민주주의와 공론형성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공론형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관리체계 확립 • 가짜뉴스와 디스인포메이션 대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및 팩트체크 시스템 확립 •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책결정 거버넌스 체계 마련
<p>배타적 지능 솔루션주의 사회 속 '고립된 개인'</p>	<p>1.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와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및 기술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 디지털 시민 주도의 지식 공유 커뮤니티 조성 지원 <p>2. 기술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한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기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 및 사용자 데이터 보호 강화 • 기술개발·응용과정에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 강화를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 마련 • 기술영향분석 역량 강화 및 관련 거버넌스 체계 개편 (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잠재적 이슈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 기술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윤리적·법적 규제를 지속적이고 민첩하게 업데이트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확립 <p>3.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능형 솔루션의 개발 및 적용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난제 및 국가적 임무(mission) 중심의 기술개발 및 적용 확대 • 임무 중심 연구개발 지원 확대 및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센티브 확대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고려한 기술 활용도 확대 및 관련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 확대 • 지능형 기술개발 및 시스템 운용 시 자원·에너지 활용 규제 및 지침 마련 <p>4. 다양한 사회적 연결과 문화 공존을 뒷받침하는 프로그램 개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공간 확충을 통한 이질적 집단 간의 교류 확대 지원 및 커뮤니티 확대 • 다문화 사회 속 감수성과 포용성 갖춘 글로벌 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모델 확립 • 다문화 커뮤니티 지원 및 협력 증진과 사회적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p>5. 경제적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규제 및 사회적 안전망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테크 규제 및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체계 마련 • 시민 참여형 빅테크 감시 및 견제 장치 마련 • 통합된 사회적 안전망 보장체계 마련 및 확대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및 재교육 프로그램 등 확대 <p>6. 민주주의와 공론형성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공론형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관리체계 확립 • 가짜뉴스와 디스인포메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및 팩트체크 시스템 확립 •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책결정 거버넌스 체계 마련

- 본 연구에서 탐색된 4가지의 2050년 대한민국 미래 사회 시나리오와 개인의 미래 모습은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향후 해당 시나리오들의 모습이 혼재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이슈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시나리오 형태로 전개할 수 있음
 - 시나리오 간의 유동성: 미래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특정 시나리오에서 다른 시나리오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음. 이는 기술발전, 경제적 변동, 정치적 변화 등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
 - 시나리오의 혼재 가능성: 다양한 시나리오가 동시에 나타나거나, 한 지역 또는 계층에서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다른 곳에서는 다른 시나리오가 우세할 수 있음. 또한, 개별 시나리오가 제시하는 개인의 모습이 배타적이지 않고 혼재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²³⁾
- 미래 시나리오를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
- 다양한 가능성의 미래에 대한 탐색은 수동적인 미래에 대한 대응을 넘어, 능동적 미래설계를 가능케 함
 - 우리가 어떠한 미래 경로를 밟아 나가야 할지에 대해 개인, 가족, 공동체, 그리고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임
 - 개인 삶의 관점에서 다양한 가능성의 미래를 탐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입법과제가 무엇인지 다각도로 탐색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삶 관점 다양한 미래 사회 시나리오를 탐색함으로써,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직면할 수 있는 특수한 도전과 기회를 식별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필요와 도전에 대응하여 국회는 관련 법률과 제도를 검토하고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도출한 다양한 가능성의 미래 시나리오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 사회 모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및 입법과제를 탐색해 나갈 필요가 있겠음

참고문헌

- 국회미래연구원(2021)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국회미래연구원
- 김현곤(2021)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20호.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원, & 김유빈(2022) 이머징 이슈를 발견할 기회의 창: 갈등 관련 10대 이머징 이슈와 시사점. Futures Brief, 제7호.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원, 김태경, 박상훈, 박현석, 여영준, 유희수, 이상직, 정혜윤, 차정미, 김유빈, & 조만석(2022)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여영준, 박성원, 박상훈, 이승환, 이효림, 김유빈, & 허유선(2023)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개인의 삶 관점 미래 사회 전망. 국회미래연구원
- 이승환(2023) 슈퍼 개인의 탄생. 어웨이크북스

23) 예로, 편편화된 균열과 분열 사회 속에서 다수의 시민이 '각자도생의 개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고립된 개인', '종속적 개인', 그리고 '자기 주도적 개인'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